

북한국제화 2017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박명규
전재성
김병연
장용석
송영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3

북한국제화 2017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북한국제화 2017>을 제안하며

한반도 정세가 봄이 오는 길목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아가는 듯하다.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 구상을 가다듬고 관련 국가들과 상호 조율에 나서기도 전에 대화의 문은 다시 닫히고 군사적 긴장만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자칫 한반도가 국제적인 핵확산의 진앙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드는 현실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범을 불과 2주 정도 앞둔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마침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제사회가 반대했던 길을 북한이 기어이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경색과 군사적 긴장 고조는 관련국 모두에 커다란 도전과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제난과 국제제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 이 위험한 선택의 파장이 남길 부정적 효과는 간단치 않을 것이다. 핵실험을 자축하는 군중대회의 이면에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사회적

긴장과 동원의 이면에서 불안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여러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조율에도 커다란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대북정책을 가다듬기도 전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커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관련 국가들과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현실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신뢰상태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통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넓고 깊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냉철하게 가다듬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당국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지혜도 모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3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기조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기 비전보고서를 작성할 연구팀을 2012년 9월 구성하고 논의를 전개해왔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풀어야 할 문

제들과 추진할 만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초당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평화협정문제, 한반도 주변국의 리더십 교체와 동북아 지역정세 변화, 대북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관여 방향 등을 핵심 하위과제로 선정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여 학계와 전직 고위 정책당국자, 현장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출범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 구상으로 ‘북한국제화 2017’을 지난 1월 31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북한국제화의 비전과 기초에 이어 한반도·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전재성 교수가, 스마트(SMART) 대북경제정책은 경제학부의 김병연 교수가 집필하였고, 핵문제 및 평화협정과 인권 및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과 송영훈 선임연구원이 각각 집필하였다.

이 책자는 이렇게 마련된 <북한국제화 2017>의 최종 보고서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통일정책포럼 등에 참가하여 깊이 있고 탁월한 식견과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

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 보고서가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관련국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면서 당면한 도
전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이룩하고 통일의 기반
을 닦아 나가기 위한 대북정책구상을 가다듬고 현실화시켜 나가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2월

박 명 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목 차

	〈북한국제화 2017〉을 제안하며	iv
I	북한국제화 2017: 비전과 기조	
1.	서론	3
2.	기본적인 시각	5
3.	북한국제화의 개념	7
4.	북한국제화의 전략구상	9
5.	결론	14
II	북한국제화와 한반도·동북아의 대안적 아키텍처	
1.	북한국제화의 배경	19
2.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환경 변화	20
3.	북한국제화의 목표	21
4.	북한국제화의 구성 요소	22
5.	향후의 정책 전개 과정	28
III	북한국제화와 스마트(SMART) 대북경제정책	
1.	서론	37
2.	북한국제화의 경제적 목표와 수단, 그리고 평가 지표	39
3.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	43
4.	새로운 대북정책의 정부 간 경험	48
5.	결론	51

IV 	북한국제화와 핵문제 및 평화협정	
1.	서론	55
2.	논의의 두 가지 전제	59
3.	북한 핵문제 해결 방향	65
4.	평화협정 활용 방향	76
5.	결론	78
V 	북한국제화와 인권 및 대북인도지원	
1.	서론	83
2.	인권문제의 탈정치화	85
3.	대북인도지원의 탈안보화	90
4.	결론	95
VI 	요약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	북한국제화 2017 핵심 요소	101
2.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언	106

표 목차

표 1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47
표 2_ 한국과 북한 정부 간 지원과 경험 사업의 평가	48
표 3_ 북한의 1·2·3차 핵실험 비교	67
표 4_ 북한 미사일 제원	68
표 5_ 신 대북경제정책의 틀	111